

Hana Infinity



2025 June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한*환/0123110*



하나은행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5월
동향

국내 성장 전망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망치 하향 등이 금리 하락 요인이었던 반면, 연준 통화정책 매파성 지속, 미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재정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미 국채 금리 방향성에 연동하며 상승 마감

대내적 한은의 비둘기적 금리인하 사이클 언급 등이 하방 압력을 강화했으나, 대외적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엇갈리게 나옴에 따라 상승 전환

대내적 국내 성장을 전망을 크게 축소할 KDI 언급 영향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미 국가신용 등급 강등은 미 달러 자산 신뢰도 저하에 영향 미치며 하방 제한한 형국

미국 재정 건전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과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향후 1%대 금리 수준에 대해 시장 기대감을 낮춘 총재 회견 등으로 상승 추세 속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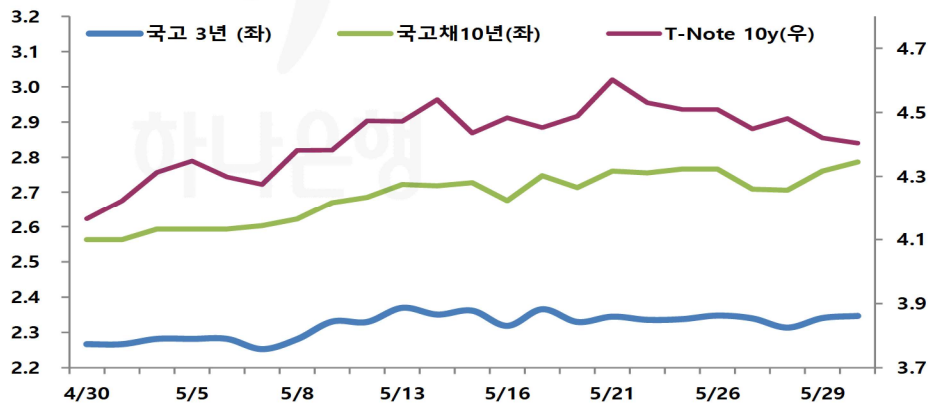
- 월초, 한은의 비둘기적 금리인하 사이클 언급 등으로 하락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이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엇갈리게 나옴에 따라 상승 전환하는 양상 시현
 - 월 초, 한은 총재 밀라노 간담회에서의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 견해 표명 등으로 금리 하락 출발했지만, 이어진 5월 FOMC에서 견조한 미국 경제 상황에 따른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연준 의장 회견 후 상승 모멘텀 강화되는 국면으로 전환
 - 상기에 따른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장단기 구간에서의 부정적 수급 영향도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 중반, 미-중 관세 대폭 인하 합의에 따른 미 국채 금리 급등 영향 이후, KDI의 성장을 대폭 하향 조정 속 한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 전환. 이후 미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미 자산가치 신뢰 저하 영향 반영되며 재차 상승 후 등락 시현
 - 중반, 미-중 90일 관세 큰 폭 인하 합의 영향과 국책연구기관의 큰 폭 국내 성장을 하향 조정에 따라 국고채 금리 상승과 하락 흐름 시현
 - 이어, 미 4월 PPI 하락, 한은 금리인하 기대 반영 속 하락세 이어졌으나, 곧이어 미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미국채 신뢰 저하 영향으로 상승 전환 후, 중국 금리인하 소식으로 재차 하락 전환한 형국
- 후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재정건전성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 후, 5월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에도 향후 '빅컷' 등 1%대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지며 마감
 - 후반, 미 국채 금리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감세안 하원 통과 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확대되며 상승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대외적 영향 반영과 추경 가능성 등이 수급 우려 자극하며 상승
 - 이어 5월 금통위에서 성장 경로 불확실성을 고려 전망치를 0.8%로 크게 낮추며 25bp 인하 단행했지만,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1% 수준 기대감을 낮추는 총재 회견 등으로 상승세 이어지며 마감

5월 평균

국고채(3년): 2.32%

T-Note(10년): 4.43%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6월
전망

다소 도비시험 속 관세의 물가 영향 고려, 여전히 연준은 매파성향 유지할 듯. 여기에 대내외 재정불확실 요인과 추경도 금리 상승 요인이나, 한은 경기 고려 향후 정책 기대 등이 금리 하락 견인할 전망

	1Q25	2Q25	3Q25	4Q25
국고채(3y, %)	2.55 ^(F)	2.30 ^(F)	2.25 ^(F)	2.15 ^(F)

미 경제 상황이 관세 영향에도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이 연준내 당국자들 판단. 또한 관세의 물가 영향도 시차를 두고 살피겠다는 견해도 매파적 측면임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전망

미국 재정불확실성 영향 지속에 따른 미 국채 수급의 부정적 영향 전이 이슈 속에 대내적 신정부의 확장적 추경 가능성 등이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판단

6월 국고채(3Y) 금리는 2.20%-2.35%

- 미국 경제 1분기 역성장 기록에도, 경제와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함에 따라 연준은 통화정책 변화 서두르지 않을 전망. 특히, 관세에 따른 물가 감소세 지연 가능성 고려 속 트럼프 회동에서 독립적 통화정책 언급 등은 매파적 시장 인식 요인으로 금리 하단 제한할 전망
 - 1분기 미국 경제가 순수입 급증으로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주요 경기 지표와 고용시장 등이 여전히 견조함에 따라 현 수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서두르지 않을 전망
 - 여기에 관세 정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연준 매파 성향이 다소 이어질 측면은 국내외 금리 상승 동인으로 판단. 또한 파월의 장의 트럼프 회동의 독립적 통화정책 언급도 시장이 연준 정책을 매파성향으로 인식하게 할 요인
- 미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단기적 감세 이슈에 따른 재정불확실성으로 부정적 시장 수급 우려 확대될 가능성 속 대내적 신정부 출범 이후 추경 확대 등이 금리 상승 영향 요인으로 예상
 - 지난달 중반 이후 불거진 미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단기 감세 이슈에 따른 재정불확실성 지속이 시장의 부정적 수급 우려 확대할 가능성은 미 금리 하단 제한 속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여기에 6월 초 이후 출범하는 신정부의 강력한 민생안정을 위한 확장적 추경 가능성 등도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 미 관세 정책 영향 속 4월 국내 산업, 생산,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시현한 가운데 5월 금통위에서 성장 전망 대폭 하향. 여기에 향후 3개월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함에 따른 시장 선반영 영향 등이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고율 관세 영향으로 4월 국내 주요 경기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내수 지표 역시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 이러한 상황에서 5월 금통위에서 성장 전망을 1.6%에서 0.8%로 크게 하향한 측면 등이 단기 국고채 시장 강세를 견인할 가운데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금통위원 4인의 3개월내 인하 가능성 제시 등의 영향도 시장 선반영을 통해 금리 하락에 영향 미치겠지만, 총재의 내년도 성장 감안시 1%대 금리 가능성 차단 등은 하단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판단한 관세 정책의 물가 영향 대응을 위한 연준 매파 성향 지속 - 대외 재정불확실성 속 대내 추경 이슈	한은의 경기 중시 통화정책 방향 지속할 가운데 향후 3개월내 추가 인하 제시

달러/원 환율

5월
동향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환율 협상 기대에 원화가 크게 강세 보였으나, 빈번한 관세 유예 언급과 연방법원 관세 정책 제동 등이 달러 가치 회복으로 작용한 가운데 한은 금리인하에 따라 1,380원대 지지 마감

미-중 무역협상의 긍정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대만 달러 강세가 아시아 통화 강세 영향 미치며 원화의 급격한 동조 흐름에 영향

■ 월초, 미-중간 무역 협상 소식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연동 출발 후, 대만 달러 강세 영향 크게 반영되며 1,370원대 진입. 이후 연준의 다소 매파적 금리 결정 속 미-영간 무역 합의에 따른 달러 가치 반등으로 1,400원대 재진입 영국 시현

- 월초, 미-중 간 무역 협상의 긍정적 소식에 따른 영향이 대만 협상에서의 대만달러 강세 용인할 것이라 소식에 대만 달러 강세에 원화 및 주요 아시아 통화 강세 연동되며 1,370원대 진입
- 이후, FOMC 회의 결과가 닷 매파적으로 인식된 가운데 미-영 무역협약 발표 소식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전환 영향 반영 등으로 1,400원대 재진입 속 미-중 관세 협상 경계감 반영된 국면

미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위험회피 심리 강화 통한 환율 상방 압력 요인이었으나, 미-일, 한-미간 환율 협상 의제에 따른 아시아 통화 강세 영향 등으로 1,390원 초반 흐름 시현

■ 월 중반, 미-중 무역협상 긍정적 합의 후, 달러 가치 상승 영향 반영. 이어 한-미 환율 협상 소식에 1,390원대 하락한 환율은 17일 미 국가신용 등급 강등으로 재차 상승 후 소폭 되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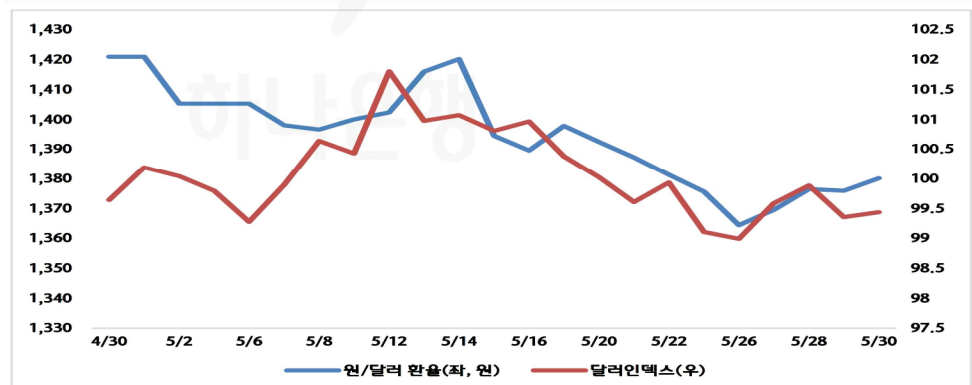
- 중반, 미-중간 무역협상에 긍정적 성과 확인 후, 달러 가치 상승 속 1,400원대 상향 지속. 이어 한-미 무역협약에서 환율의제 소식의 원화 강세 기대 강화에 따라 환율은 1,390원 후반까지 하락한 국면
- 17일, 무디스의 미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위험회피 심리 고조되며 1,400원대 재차 터치했지만, 이어진 미-일 환율 협상에 대한 기대가 엔화 강세의 원화 동조 영향으로 재차 1,390원 초반까지 하락

미 재정 불확실성과 EU관세 이슈로 1,360원대까지 하락한 환율은 미 연방정부 관세 정책 제동과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 등의 영향 반영되며 상승 추세 전환 속 마감

■ 후반, 아시아 통화가치 상승 요인에 더해 미 재정 불확실성 확대와 EU 관세부과 등으로 1,360원대로 하락. 하지만 미 연방법원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제동과 한은의 전격 기준금리 25bp인하에 따라 환율은 1,380원대 초반 회복하며 마감

- 후반, 미-일 환율 협상 기대에 따른 아시아 통화 강세 및 미 재정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의 EU 50%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에 원화 강세 보이며 1,360원대까지 환율 하락
- 하지만, EU에 대한 트럼프 관세 유예와 미 연방법원 관세 정책 제동 등이 달러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월 후반, 금통위 전격적 25bp 금리인하 영향 더해지며 환율은 1,380원대로 상승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5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93.4

5월말 달러/원 환율

: 1,380.1

6월
전망

미 관세 재격화 영향이 다소 달러 가치 하락 견인할 가운데, 원화 관련 빈번한 환율 협상 소식 등은 원화 강세 요인 작용할 전망. 다만, 한-미 간 금리차가 재차 확대된 영향 등이 원화 강세를 일부 상쇄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440 ^(F)	1,400 ^(F)	1,350 ^(F)	1,370 ^(F)

연준은 상반기 중 여전히 관세 정책 행보 주시하며 물가 대응 매파성향 유지할 전망. 이에 한은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 역전폭이 다시 확대된 국면 등이 관세 정책에 의한 달러 약세 효과를 다소 상쇄할 전망

- 연준 기조가 향후 미 경기 침체 우려 표명하면서도 당장 관세 효과로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기조 유지될 전망. 이에 한-미간 금리차 재차 최대 역전폭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효과를 일부 상쇄할 요인으로 판단
 - 최근 미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에 대한 중지 결정으로 연준은 관세 정책에 따른 높은 물가 수준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 상반기 중 매파적 통화정책 인식으로 자리잡을 전망
 - 이러한 상기 달러 강세 요인 속 한은 금리 인하 결정에 한-미간 금리차가 재차 최대 역전폭에 도달한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에 따른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미 연방법원의 관세 중단 명령 정지에 따른 미-중, 미-EU간 상호 및 품목별 관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측면이 미 경기 우려와 달러 가치 하락에 유의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 법원의 관세 중단 명령에 대해 일시 정지 결정 내려진 가운데 대중, 對 EU 등과 관세 갈등이 격화하는 측면이 재차 관세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며 달러 가치 하락 심화 될 가능성
 - 미 연방법원 관세 제동에 대해 연방순회합소법원 판단으로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행보가 재차 탄력 받을 수 있는 국면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적인 영향 미칠 전망
 - 이에, 중국과 EU에 대한 관세 공세가 심화될 가능성 상존 속에 품목별 관세 부과 강화 조치 등이 재차 관세 정책에 의한 미국 경기 하강 우려와 달러 가치 하락에 영향을 초래, 원화 강세 탄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그 영향 정도는 다소 제한적일 듯

6월 달러/원 환율
1,365~1,390원 예상

- 국내 정치불확실성이 견여가는 국면 임에도 1분기 역성장 시현 속, 한은 성장을 축소할 가운데 내수 부진 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에 외국인 신뢰도 회복은 다소 시차가 예상. 반면, 한-미 협상 '환율 의제' 영향이 빈번하게 반영될 소지 등은 상대적 원화 강세 견인할 전망
 - 국내 정치불확실성이 크게 견여질 전망이나, 1분기 역성장 영향 등이 신정부 출범 이후로도 이어지며 내수 등이 다소간 부진할 전망. 이에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회복은 시차가 존재할 전망 속에 대내 금리차 역전 폭 확대 영향 등이 외자 유출 우려와 원화 강세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미 관세 정책이 법원 결정 이후 탄력 받을 전망 속에 7월까지 예정된 한-미 무역협상에서 '환율 의제' 영향이 빈번하게 반영될 가능성 등은 원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연준의 물가 대응 매파적 기조 지속 가능성 - 재차 확대된 한-미간 대내금리 역전 폭 이슈	- 한-미 무역협상 중 빈번히 반영될 '환율 의제' 소식 - 미-중, 미-EU 관세 갈등 격화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5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4.8
5월 엔/원 평균환율
: 962.1

6월 엔/원 예상범위
: 965~995원

일본 물가 상승세 지속 요인에 따른 BOJ와 시장의 추가 통화정책 변경 기대와 관세 이슈에 따른 달러 약세 전망 등이 소폭 엔화 강세 지속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엔화 동향)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와 대만 달러 강세에 의한 아시아 통화 강세에 동조화되며 하락 추세 출발한 엔화는 미-영 관세 협정 체결 소식과 이에 후속한 미-일 협상 기대에 146엔대로 상승 국면 시현. 중반, 미-중간 실질적 협상 진전 소식의 긍정적 평가에 위험선호 속 크게 엔화는 약세 시현. 이어, 4월 높은 일본 PPI로 인한 시장 금리인상 기대와 한-미간 통화 절상 협상 소식 등의 영향이 엔화 강세 전이된 영국. 후반 들어, 엔화 강세 이어지다 일본 재무성이 장기국채 발행을 축소할 것이란 관측에 따라 빠르게 145엔대로 약세 보이며 마감
- (엔/원 전망)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하는 가운데 BOJ 통화완화 조정 가능성 점증 및 시장 기대 반영 등이 일본 대내적 엔화 강세 요인으로 사료. 여기에 미 관세 정책 지속 위한 법원 판결 지지 요인은 달러 가치 약세 요인으로 판단. 또한 장기 국채 입찰 부진 및 재정불확실성 상존 이슈 등은 대내금리차 축소를 통해 엔화의 추가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본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에다 총재의 통화정책 조정 시사 및 시장의 금리인상 선반영 이슈 등이 엔화 강세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미 관세 정책 지속하는 가운데 미-일 환율 협상의 빈번한 소식 전파 등도 엔화 강세 지지할 전망 속에, 엔/원 환율은 전반적 엔화의 상대적 강세 요인 우위 속에 소폭 상승한 965원 전후 예상

유로/원 전망

5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274
5월 유로/원 평균환율
: 1,570.8

6월 유로/원 예상범위
: 1,530~1,580원

ECB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성장 회복의 시장 인식으로 유로 강세 요인. 여기에 격화 조짐의 EU-미국간 관세 갈등도 유로 강세 지지할 전망이다, 예상과 달리 확산되는 우-러 전쟁 지속 등은 강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유로화 동향)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 속 유로 강세 출발. 이어 아시아 통화 절상 기대에 달러 약세 편승되며 유로 강세 지속하다 연준의 신중한 금리인상 기조와 대중국 관세에 대한 강경한 미국 입장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유로 약세 전환. 중반, 미-중 무역협상 합의 도출 속 달러 강세 전환과 우-러 휴전 회담 무산 영향으로 유로화는 약세 지속. 후반 들어,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재정 불확실성 확대에 유로 강세 전환 후, 미-EU 관세 이슈 이후 미 연방법원 관세부과 중지 효력이 복원 속에 달러 변동성 확대에 약세 마감
- 유로는 물가 2%에 근접하며 추가 금리인하 여력 등이 약세 요인이거나, 중장기적 경기회복력 복원 인식은 강세 흐름 영향 미칠 전망. 여기에 미 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 효력 되살아난 점이 재차 달러 자산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유로 강세 탄력 미칠 것으로 보임. 다만, 우-러 종전, 휴전 협상 오가는 가운데 전쟁 지속 국면은 강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유로존 물가 하락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여력에도 경기 회복 동력 인식은 강세 요인. 여기에 미 관세 효력 되살아 난 점 있지만, 재차 트럼프 관세 갈등 격화 이슈 부각은 소폭 유로 강세 제한 가능성 상존
 - 또한, 우-러 전쟁이 종전과 휴전 협상 오가는 가운데 전쟁 지속 국면 또한 유로 강세 제한 요인으로 예상. 이에 유로/원 환율은 관세 이슈에 따른 달러 약세의 상대적 원화 반영 속 1,530~1,580원 등락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5년 6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휴전] 중국(단오절) 미국 5월 판매 데이터 미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47.5) 미 4월 건설지출(MoM) -0.5%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제조업, 구매물가 유 5월 HCOB 제조업 PMI(F) 일 5월 지분 은행 제조업 PMI(F)	3 한국 휴장(대선) [휴전] 한국(대통령선거) 제 21대 대통령선거 EV 트랜드 코리아 2025(-5) 미 4월 제조업수주(MoM) +4.3% 내국환 주권(F)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7192k) 중 5월 Caxin 제조업 PMI(50.4) 중 5월 실업률(6.2%) 5월 CPI(F)(YoY +2.2%) CPI 근원(F)(YoY +2.7%)	4 ECB 통화정책회의(~5),Beige B5 ECB 통화정책회의(~5)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25%로 25bp 인하 후 6회 연속 금리 인하 단행 연준 패시브적 공개 한 1Q GDP(F)(QoQ -0.2%, YoY -0.1%) 5월 CPI(MoM) +0.1%, YoY +2.1%) CPI 근원(YoY +2.1%) 미 5월 ADP(월간) 변동(62k)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유 5월 HCOB 종합, 서비스업 PMI(F)	5 2025 자율제조 월드쇼(AMWS) 서울국제관광전(-8)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8) 닌텐도 스위치 2 글로벌 출시 [연말] 연이론 판매 미 5월 Challenger Job Cuts 중 5월 Calvin 종합, 서비스업 PMI(51.1, 50.7) 유 4월 PMI(MoM) -1.6%, YoY +1.9%)	6 한국 휴장(연휴일), 미국 고용보 [휴전] 한국(연휴일) [음식료] FAO 세계 식량가격지수 미 4월 소비자신용지수 5월 비농업부르고장사 변동(177k) 제조업인근변동, 실업률(4.2%) 시간당 평균 임금(MoM +0.2%) 유 4월 소매판매(MoM -0.1%, YoY +1.5%) 1Q GDP(F)(QoQ +0.3%, YoY +1.2%) 고환(F)(QoQ +0.3%, YoY +0.8%) 일 4월 한영지수, 동영지수(P)	
8		9 애플 WWDC(~13) 애플 WWDC(~13) : iOS 등 운영체제와 사용자 UI 개편 예정 2025 중국 디지털발 개표 기술 전시회(~12) [기업] 라리안트 소액매각(-13) 미 5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3.6%) 중 5월 CPI(YoY -0.1%), PPI(YoY -2.7%) 수출/입(YoY) +8.1%, -0.2%) 통화량금 M2(YoY +8.0%) 일 1Q GDP(F)(QoQ +0.6%, YoY	10 [채권] 미국 1년물, 3년물 국제 입찰 [기업] 지비지분 코스트릭 상장 [IT] TSMC 5월 매출 발표 [자동차] 중국 5월 판매 데이터 법제시, 금융 AI Agent 컨퍼런스 미 5월 NPIB 소기업 낙관지수(95.8) 유 6월 벤처스 투자자기대지수(-8.1) 일 5월 통화량 M2(YoY +0.5%) 미 Optical Cable, J M Smucker Co,	11 지준일, 미국 CPI [채권] 미국 10년물 국제 입찰 [기업] 지비지분 코스트릭 상장 2025 리튬(수출/수입)마스터스(미국) (-14) 한 5월 실업률(2.7%) 6월 1~10월 수출/입(YoY -23.8%, -15.9%) 미 5월 CPI(MoM) +0.2%, YoY +2.3%) CPI 근원(MoM) +0.2%, YoY +2.8%)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1.4%) 일 5월 PPI(MoM) +0.2%, YoY +4.0%)	12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1) 추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 옵션 내지리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 (2) 투자자들은 스프레드 고평가, 저평가 여부 에 따라 기존 고노의 만기연장 규모 결정 [기업] 뉴베베리아 주주매력(-18)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미 5월 PPI(MoM) -0.5%, YoY +2.4%) PPI 근원(MoM) -0.4%, YoY +3.1%)	13 코스피200, 코스닥150 정기변 코스피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코리아 발행물 지수 동속 리밸런싱 90도를 위한기 경영전략회의(-14) 미 6월 미시간 소비자지수,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유 4월 산업생산(MoM +2.6%, YoY +3.6%) 일 4월 동영합상선(F)	
15 G7 정상회의(~17) G7 정상회의(~17) : 주요 선진 7개국이 모여 글로벌 경제, 무역, 보건, 안보 등 국제 이슈 논의	16 BOJ 금융정책위원회(~17) [BOJ] 금융정책위원회(~17)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5%로 동결 (2) BOJ는 미국 관세 여파로 동결 결정했음 나 향후 인상 기조 이어갈 방침 2025 바이노 USA(-19) [채권]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한 5월 통화량금 M2(MoM -0.1%) 미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9.2) 중 5월 실업률(5.1%) 동영합상선(YoY +6.1%) 소매판매(YoY +5.1%)	17 미국 FOMC(~18) [미국 FOMC(-18)]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4.25%~4.50%로 3회 연속 동결 (2) 연준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실물 데이터 확인 후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 유지 한 5월 수출물가(MoM -1.9%, YoY -2.3%) 수출물가(MoM) -1.2%, YoY +0.7%) 미 5월 소매판매(MoM +0.1%) 소매판매 근원(MoM +0.1%) 동영합상선: 소비가동률 수출물가(MoM +0.1%, YoY +0.1%) 수출물가(MoM +0.1%, YoY +2.0%)	18 중국 618 쇼퍼 축제 중국 618 쇼퍼 축제 2025 새 학년포럼 2025 테라팩스 엑스포(MVEX)(~20) 미 5월 주택착공건수(MoM +1.6%) 건축여가(F) 유 5월 CPI(F), CPI 근원(F) 일 5월 수출/입(YoY +2.0%, -2.2%) 영국 CPI, PPI (YoY, MoM)	19 BOE 통화정책회의 [휴전] 미국(존타스 데이) [BOE]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25%로 25bp 인 아 지난해 종반 이후 4번째 금리 인하 단행 (2) BOE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잠정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 금융위 마에미터 2.0 시행 특히 미국 자산 매각 기간 유 4월 건설 생산(MoM +0.1%)	20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2025 미국 영농정책회의(ADAY(-23) KOADIMEX 2025(-22) [IT] 중국 산업정보통신부 발간 스마트폰 출하량 한 5월 PPI(YoY +1.3%) 미 6월 빌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유 6월 소비자지수(F) 일 5월 건설, 국내 CPI	21	
22	23 [자동차] 유럽 5월 판매 데이터 한 5월 1~20일 수출/입(YoY -2.4%, -2.5%) 미 5월 기준주택매매(MoM -0.5%) 6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F) 유 6월 HCOB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F) 일 6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제조업 PMI(F)	24 NATO 정상회의(~25) NATO 정상회의(~25) : 북대서양 유랑국 등으로 구성된 군사 동맹 회의.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등 논의할 예정 [채권]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2025 한월 코리아(-26) 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 소매판매 미 6월 빌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경기연황 컨퍼런스보트 소비자지수(F)	25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채권] 미국 5년물 국채 입찰 한 조세책 발산-군수 공동위원회 미 5월 신규주택매매(MoM +10.9%) 건축여가(F)(MoM -4.0%) 일 4월 산업지수, 동영지수(F) 5월 PPI 서비스	26 EU 정상회담(~27) EU 정상회담(~27) :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며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대우 전략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서울테라팩스 2025(-27) : 구글, 세일프로스, 인텔 등 기업 참여 미 1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T) 6월 엔자스티티 제조업활동(-10)	27 미국 PCE 미 5월 PCE 물가, 근원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6월 미시간 소비자지수,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엔자스티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중 5월 산업생산(YoY +6.1%) 일 5월 소매판매, 실업률 6월 도쿄 CPI	28	
29	30 광둥주책 재료에너지전축물(ZEB) 의무화 [IT] 5월 DRAM 계약가격 발표 NAND FLASH 계약가격 발표 한 5월 산업활동동향 5월 금융기관 가중액규리 미 6월 MINI 시카고 PMI 엔버스 연준 제조업 활동 중 5월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 유 6월 소비자지수(F)						

한*환/0123110**



하나은행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